

일본 Nikkei Trendy(잡지) 선정 2011 히트상품



at 농수산물유통공사
Korea Agro-Fisheries Trade Corporation

해외사업처

일본 Nikkei Trendy 선정 히트상품

5위 - 낫싱 즉석컵 밥

Best30 for 2011

5位
国民的なブランドの力でレンジ即席食品が開花
驚異的な垂直発進で、市場は倍増の見込み
日清カップヌードルごはん

●近畿先行発売、全国発売ともに劇的なスタートダッシュを見せる

2010年8月16日	「カップヌードルごはん」「カップヌードルごはん シーフード」 近畿先行発売 → 発売4日後に販売一時休止
9月27日	供給体制を整え、「カップヌードルごはん」近畿で販売再開
2011年3月7日	「カップヌードルごはん シーフード」近畿で販売再開
7月25日	「カップヌードルごはん」全国発売 ※驚異的な売れ行きでレンジ即席食品市場が倍増する見通し

電子レンジの普及率は9割を
超へ、ガスコンロや鉄土はなく
あれば珍らしくない。それでも、
レンジ即席食品の認知度はな
かなか広がらず、伸び悩んでい
た。ところが2011年はこの
市場が一挙に2倍近く拡大する
見通し。即席食品の新たな時代
を拓いたのが、日清食品の
「日清カップヌードルごはん」だ。
2010年8月の近畿先行発
売時は、需要が予想を大きく超
え、僅か4日後に販売一時休
止。工場ラインを増強し、20
11年3月に全国発売されると、
多くの店で即席の場所に山積み
にされ、驚異的な垂直発進を遂
にした。



정체되고 있던 렌지조리용 즉석식품의 시장이 컵누들 밥으로 인해 2011년에 2배 이상 증가할 전망. 2011년 7월 전국발매를 시작으로 경이적인 매출을 올림. 3800억엔이라는 거대한 컵면시장의 텁브랜드력을 이용한 마케팅이 성공의 열쇠

일본 Nikkei Trendy 선정 히트상품

7위 - 막걸리(한국산)

7位 マッコリ

古くて新しい伝統酒が2倍の市場規模に成長
チャーン・ケン・シング効果で女性中心に一大旋風に

【ソウルマッコリ】
■国内マッコリ市場が一気に大型化
●300万ケース見込み

年	1万ケース当たり単価(円)
99	18
2000	20
01	22
02	24
03	26
04	28
05	30
06	32
07	34
08	36
09	38
10	40
11	42

※韓国企業との共同開発で本格感を出しつつ、やや甘めに仕上げるなど日本人好みにアレンジした

■ソウルマッコリ
乳酸由来のやさしい味わい
アルコール度数6%
原産元 サントリー酒類(株)
ソウル麦芽(社)製造

■JINROマッコリ
「ソウルマッコリ」のCMで女性陣が喜んで飲んでいた
ソウルマッコリのCMで女性陣が喜んで飲んでいた
ソウルマッコ리의 [서울막걸리]가 발매 2개월만에 연간 판매계획 35만케이스를 돌파하는 바람에 계획을 3배에 이르는 100만케이스(가정용)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9월현재 77만케이스가 판매되는 등 호조를 보이고 있다.
진로재팬의 [JINRO막걸리]도 전년대비 1.5배 성장 CM의 효과도 있었으나, 캔제품화 하여 가정에서 마시기 쉽도록 한 것이 재구매율을 높인 것이다.

산토리의 [서울막걸리]가 발매 2개월만에 연간 판매계획 35만케이스를 돌파하는 바람에 계획을 3배에 이르는 100만케이스(가정용)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9월현재 77만케이스가 판매되는 등 호조를 보이고 있다.
진로재팬의 [JINRO막걸리]도 전년대비 1.5배 성장 CM의 효과도 있었으나, 캔제품화 하여 가정에서 마시기 쉽도록 한 것이 재구매율을 높인 것이다.

일본 Nikkei Trendy 선정 히트상품

15위 - 폰즈 쥬레(젤리형 소스)



15位 ぽん酢ジュレ

3社競合で、新たな調味料ジャンルが確立
多様なメニューに使える、安心感で選ばれた

食べるラー油のカームを
受け、2011年は柑橘の風味
料が次々と発売された。そのなかで「ぽん酢」が注目度を取った
のが、「ぽん酢ゼリーパウチ」
た調味料、ぱん酢ゼリーパウチ。
2月にヤマサ醤油がハウス食
品から発売され、今は同社と
の競争」とメディアが書いて
いる。瓶も仕切り直し。
8月中旬にぽん酢ゼリーパ
ンカンが参入する、三つ巴
の「ぽん酢ゼリーパウチ」
8月に販売を開始。宣伝や
PRも仕切り直し。
8月上旬にぽん酢ゼリーパ
ンカンが参入する、三つ巴
の「ぽん酢ゼリーパウチ」
の順番にかけて食べる。メニュー
は新しさに加え、汎用性
も高まっている。たとえばシ
アを振り、ミツカベ、ヤマサ
の順番にかけて食べる。
順番は新しさに加え、汎用
性の開拓を図ったのである。場
所を問わず、料理やおつまみなど
メニューに使えることがCMで
訴えられており、鮮魚丼
リヨウなどにも積極的に使われた。
多くの家庭の冷蔵庫はたぐさ
んの調味料です。海苔と味噌と
いわれ、使用頻度の低い調味料
が販売順位に多くなることも少
なくない。一本で何役もこなす
という安心感で、無難な調味料
を詮議する消費者が獲得した。

2010년 떠먹는 라유의 붐에 이어 새로운 조미료가 속속 등장하였으나, 그 중에 가장 눈에 띈 것이 폰즈를 제리 형태로 만든 [폰즈 쥬레]이다. 야마사쇼유와 하우스식품 2개사가 발매한 이후 한달만에 계획대비 1.5~2배의 호조를 보였으며, 8월에 폰즈 대형메이커 미즈칸이 가세하면서 9월말현재 3사 매출규모는 11억엔 수준이 되었다. 요인으로서는 튀김, 샐러드, 스시 등 여러가지 요리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으로서 각 가정의 냉장고에 사용빈도가 낮은 조미료 보다는 ‘이 한병이면 된다’는 안심감을 어필한 것이 주요했다는 분석이다.

일본 Nikkei Trendy 선정 히트상품

18위 – 마시는 홍초

18位 紅酢(ホンチヨウ)
若い女性の美容ニーズを捉えた韓国発飲料

■ 1か月の出荷量は70倍以上の約6万ケースに
●今年度の売り上げが10億円を突破
「小売金額」10月以降も月6万ケース出荷を見込み、50億円に到達か
注) 大量シャトルの出荷量をもとに編集部で作成

※ヒットに貢献した「いなげや」では、月に1店舗で約360本が売れることがあり、それを乗じて開拓したのが、韓国で人気急上昇中の「KARA」だ。

2011年3月 「いなげや」 2011年3月
「KARA」 2011年3月
月から全国で取り扱つた
る好調。この成功を口火に版
路が拡大し始めた。

1ヶ月に1,000~2,000
ケース程度だった出荷量は
うなぎ登りに増え、9月には
約6万ケースに到達。3億
を目指していた今年度の売
り上げは、すでに10億円を突
破した。今後も販売万台
で推移する見通しで、年度実
績は50億円が見込まれる。
近年は韓国程度でドライブト
レンドの飲食市場を向か
え、飲食店でも人気急上昇中。
年近くは韓国で開拓された
火を付けたのは、首爾駅チ
ェーン展開するスーパーの
商品やスマート店はあるが、
ヒット商品は生まれていま
った。結局も2010年4月
に日本で発売され、1
年近くは韓国で開拓された
火を付けたのは、首爾駅チ
ェーン展開するスーパーの
商品やスマート店はあるが、
ヒット商品は生まれていま
った。結局も2010年4月
に日本で発売され、1
年近くは韓国で開拓された
火を付けたのは、首爾駅チ
ェーン展開するスーパーの
商品やスマート店はあるが、
ヒット商品は生まれていま
った。結局も2010年4月
に日本で発売され、1
年近くは韓国で開拓された
火を付けたのは、首爾駅チ
ェーン展開するスーパー의
商品이나スマート店はあるが、
ヒット商品は生まれていま
った。結局も2010年4月
に日本で発売され、1
年近くは韓国で開拓された
火を付けたのは、首爾駅チ
ェーン展開するスーパー의
商品이나スマート店はあるが、
ヒット商品は生まれていま
った。結局も2010年4月
に日本で発売され、1
년近く은 한국에서 개척되었던
화를 퍼뜨렸다. 그 후에는
수도권 체인점 [이나게야]에 입점하면서
매출이 확대된다. 1개월에 1~2천케이스였던
출하량이 9월에는 6만케이스에 도달하여, 금년도
매출목표 3억엔을 뛰어넘어 10
억엔을 돌파하였다. 금년도
매출은 50억엔정도 될 전망이다.

‘음용 식초는 나이드신 분이 건강을 위해 먹는 음료’라는 이미지를 ‘미용에 좋다’는 이미지로 바꾸어 10~40대 여성에게 어필한 것이 홍초이다. 지금까지 일본에서 식초음료가 히트상품으로 선정된 적은 없었던 만큼 홍초도 2010년 4월 발매이후 1년여간 고전을 면치 못했다. 그러나, 2011년 3월에 수도권 체인점 [이나게야] 전점포에 입점되면서 매출이 확대된다. 1개월에 1~2천케이스였던 출하량이 9월에는 6만케이스에 도달하여, 금년도 매출목표 3억엔을 뛰어넘어 10억엔을 돌파하였다. 금년도 매출은 50억엔정도 될 전망이다.

일본 Nikkei Trendy 선정 히트상품

24위 - 전자레인지로 만드는 튀김가루

전자레인지의 간편성을 활용한 상품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성과를 올리고 있는 제품이 ‘레이지로 만드는 튀김가루’이다. 4~9월 6개월간의 매출이 6억엔 정도되어 연간 50억엔 규모의 튀김가루시장에서 한자리를 차지했다. 후라이팬이나 기름을 사용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여름철 냉방비를 절감할 수 있는 절전상품으로서 인기를 모았다. 가열하지 않기 때문에 생길 수 있는 문제 해결을 위해 밀가루를 사용하지 않고, 옥수수가루나 분말간장을 중심으로 배합하여 만들었다.

일본 Nikkei Trendy 선정 히트상품

25위 – 네슬레 백색 코코아

● 白ココアで売り上げが倍増
シェアを2倍に押し上げ市場を拡大した
約10億円 約20億円 (約800万袋出荷)
従来商品 ココアドールシリーズ
注) 金額は原材料をもとにした総量の内割合

25位 ネスレココアドール 白ココア
「白の意外性が大人の女性の心をつかんだ
デザート感覚」を売りに市場シェアを倍増

ありきたりでなかった「白」ココア。この
新規性を駆けたのがホワイトチョコレート。
たネスレ日本「ココアドール 白ココア」だ。
通常よりもビター感を強くした「黒ココア」と同時に2010年9月に発売したと
ころ、出荷量が目標の7倍に到達。激減す
る黒ココアの需要バランスでは対応しきれず、
品切れ回避するため増産用の特別パッケ
ージを即座に導入した。

発売期である2010年9月から2011年9月までの売り上げは「黒」「白」合
わせて前年の3倍以上を達成。年間約800
万袋を出荷し同社のシェアも2倍に成長。市
場を開拓した。その立て役となつたのが
ホワイトココアの誕生数を拓める「ココアドール」。ホワイトチョコレートを原料にする開拓リリ
スクなるが、独自技術で粉状を保つことに
成功した。バニラビーンズを入れて香りを
高めながらも価格を抑え、大人が日常的に
デザート感覚を自分のために飲む、という提案
で大人の女性を引き込んだ。

있을 수 없을 것 같은 흰색의 코코아라는 의외성으로 출하량이 목표의 7배에
도달할 만큼 급증하였다. 네슬레의 코코아시장 점유율도 2배 성장하였는데 큰
몫을 한 것이 백코코아다. 화이트초코를 원료로 할 경우 굳어버리기 쉬운 단점을
을 독자 기술로 분말상태를 유지시키는 것에 성공하였다.

일본 Nikkei Trendy 선정 히트상품

30위 – 아사히 더블제로 칵테일



2009년 이후 지속되고 있는 non alc 음료 시장에 신장으로서 발매된 것이
‘더블제로칵테일’이다. 7월말에는 85만케이스의 매출을 올리는 등 연간목표도 100만케이스에서 130만케이스로 상향 조정했다. TV CM도 주요하여 그동안 무알콜맥주가 공략하지 못했던 젊은 여성층을 효과적으로 공략하였다.